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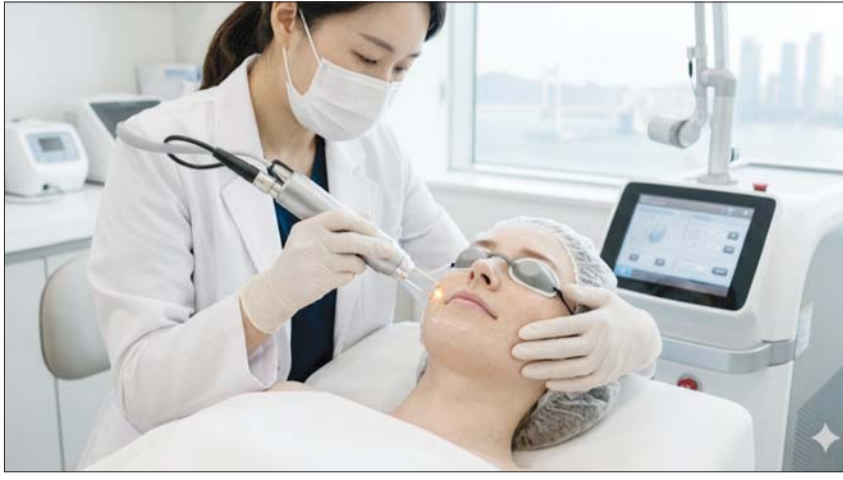
# 부산시,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7만5879명 유치

전국 순위 첫 2위, 비수도권 1위  
대만 방문 급증... 日·中 등 잇따라  
전체 67% '피부과' 방문객 차지

부산시가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 7만 5879명을 유치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3만 165명 대비 151.5%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과 비교해도 284.2% 늘어난 성과다.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부산은 전국 유치 순위에서 처음으로 2위를 달성했다. 서울, 부산, 경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 관광객이 집계된 가운데 부산은 2년 연속 비수도권 1위 자리도 지켰다. 부산의 의료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후 2023년 1만 2912명, 2024년 3만 165명, 2025년 7만 5879명으로 가파르게 회복·성장했다.

국적별로는 대만이 37.4%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7219명에서 2025년 2만 8373명으로 293% 급증하며 2년 연속 1위였던 일본(22.2%)을 제쳤다. 이어 중국(15%), 러시아(4%), 미



부산의 한 피부과 병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 시술을 받고 있다.

/Gemin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국(3.7%), 태국(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219%, 일본 129%, 태국 105%, 미국 77% 등 주요 국가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전체의 6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피부과 방문객은 2024년 1만 3158명에서 2025년 5만 2798명으로 301% 증가했다. 이어 성형외과(6.5%), 내과 통합(5.3%), 검진센터(3.9%), 치과(1.7%) 순이었다. 일본·대만·중국 방

문객의 피부과 수요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관광객의 부산 방문 급증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은 68만 7832명으로 전년 대비 37.4% 늘었으며, 접근성이 좋은 피부과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는 것이 하나의 관광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우수 의료 기관

선정·공동 홍보, 국제의료 수용태세 개선, 대만 등 대상 유치기관 마케팅 지원, 중국·러시아·몽골 대상 의료 관광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등을 통해 부산 의료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올해 '2026 부산의료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선순환 생태계 강화(Flow), 융복합 차별화(Identity), 목적지 브랜딩(Trust) 등 3대 전략으로 고객 맞춤형 행복 서비스(FIT) 구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 관광객 10만 명 유치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덕 시장 권한대행은 "의료 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1인당 지출액이 훨씬 높아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 융복합 의료 관광 모델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포항시

#### '시티투어'로 주요 명소 한 번에

포항시는 관광객 유치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2026년 포항관광 시티투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티투어는 화·목·토요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용 유형에 따라 1박 2일 코스와 30인 단체코스, 팡팡코스, 여름 한정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관광 수요가 높은 주요 명소를 하나로 연결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남북구로 나뉘어 운영되던 팡팡코스를 단일 코스로 통합해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와 과메기박물관, 호미곶광장,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스페이스워크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영주시

#### 소수서원 야간개장 운영

영주시는 소수서원 야간개장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연계해 운영 중인 소수서원 야간개장이 관광객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후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운영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김해시

#### '고령친화도시' WHO 재인증 목표

김해시가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2941억원을 투입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재인증 획득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3년 9월 WHO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WHO가 제시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22개 부서가 총 8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전달 기관 이전,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AI안심유타리사업·그냥드림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 경남도, 아동복지정책에 1.4조 투입

### 3대 전략·10대 과제·435개 사업 아동수당 지원 대상 8세까지 확대 AI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체계화

경남도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아동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목표로 ▲돌봄·성장 환경 조성 ▲위기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 참여 및 권리 실현 기반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10대 추진 과제와 435개 세부 사업에 총 1조 43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돌봄·성장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

료 지원은 0~5세로 각각 넓힌다.

다함께돌봄센터는 48개소에서 61개소로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며 연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보호·안전·자립 분야에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기 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보호 체계로 전환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주거·취업·교육 연계 지원과 자립정착금 등을 강화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권리·참여·소통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아동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부·울·경, 125억 규모 이음 프로젝트 추진

### '초광역 일자리 공동체' 실현 4년간 524개 일자리 창출 등 목표

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손잡고 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이음 프로젝트' 공모에 부·울·경이 공동 선정되며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 청년 유입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 자동차, 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인재 확보부터 정착·산업 고도화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초광역 일자리 공동체' 실현을 추진한다.

사업은 앞으로 4년간 524개 일자리 창출, 400명 청년 정착, 1350명 정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다른 권

역에서 부·울·경으로 유입된 연구·혁신 분야 신규 취업 청년과 지자체 간 출퇴근 또는 거주지 이전 근로자 등이다.

사업은 '인재이음', '정주이음', '미래이음' 3대 프로젝트와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인재이음 프로젝트는 자산 형성과 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른 권역에서 지역 주력 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이주·정착비 최대 2000만원과 자산 형성비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정주이음 프로젝트는 출퇴근 근로자 부담 완화와 고용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1350명을 대상으로 통근비 최대 180만원과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하고, 통합 네트워크 구축·찾아가는 취업버스 운영·초광역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간·공간·경계 없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범 운영

### 법률·노동·생활·체류 상담 서비스

울산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담 지원 거점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동구 일산동 테라스파크 D동 2층에 약 390㎡ 규모로 조성됐다. 상담·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시범 운영 기간 중 법률·노동·생활·체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금·토요일은 휴무다. 평일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배려해 일요일 운영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창구 모습./울산시

점이 특징이다.

운영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며 초기 6명의 인력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원은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다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 경북도, '농촌용수개발사업' 4개 지구 선정

### 1483억 국비 확보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도내 4개 지구가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148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구미 산정지구 429억원, 영천 영화지구 397억원, 울진 황보지구 220억원)와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사업 1개 지구(예천 풍양지구 437억원)이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송수관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고자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구미 산정 지구와 영천 영화지구는 올해 세부 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본조사대상지로 선정된 울진 황보 지구는 수자원 개발 여건, 용수 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 착수지구 지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연계해 지역 수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유수량을 인근 농경지에 공급하고자 추진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 거창군

#### 출산지원금 2000만원... 4배 ↑

경남 거창군이 저출산·인구 감소에 맞서 정주 인구나 생활 인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초 인구 6만 선이 무너지던 이후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출산 지원금 규모다. 2026년 출생아부터 출산 축하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높였으며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